



특별선교주일

예배와 기도

세계성찬주일



본 예배 자료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세계성찬주일 자료 꾸러미의 일부입니다. 각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본 자료들은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배로 부름

인도자:
오라, 슬픔의 강가에 앉아 희망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노래하시는지 묻던 이들이여.

회중:
우리는 유랑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타향살이의 고통을 마음에 품으며,
그리움을 기도에 담아 나아옵니다.

인도자:
이 식탁은 기억이 존중받고, 이야기가 거룩해지며, 낯선 이들이 형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회중:
우리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며,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것임을 믿기 위해 나아옵니다.

인도자:
전 세계 곳곳, 다양한 언어와 땅 위에 거룩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회중: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옵니다.

다 함께:
오라, 우리를 환영하시고, 기억하시며, 온 세상을 소망으로 먹이시는 그
분을 예배합니다.

목회 기도

강과 광야의 하나님, 바빌론과 예루살렘의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유랑을 겪는 세상 한가운데서 깊은 아픔을 안고 주님께 나
아옵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이들,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난민들, 환대를 찾
아 떠나는 이민자들, 이름조차 잊힌 채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안식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새로운 고향에 닿
게 하소서. 겨자씨만 한 믿음을 가진 이들, 작고, 불확실하며, 압도당한 이
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믿음의 행동도 변화의 숲을 심을 수 있
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우리를 감화하셔서, 종으로, 이웃으로, 다
른 이를 위해 기꺼이 식탁을 차리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소서. 슬픔에 잠
긴 이들, 상실로 인해 애도하는 이들,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깨어진 관계
속에서 헤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상처를 주님의 온유함으
로 품어 주소서. 고침이 가능한 곳에는 치유를, 그렇지 않은 곳에는 평화
를 주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을 기념하는
모든 교회, 각자 은혜의 조성으로 찬양하는 모든 목소리를 위해 기도합니
다. 우리의 하나 됨이 각자의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를
기념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언어, 모든 이야기가 자리를 갖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이 신뢰를 저버리고, 정
의가 지연될 때,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정의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자비를 실천하게 하시고, 주의 식탁이 언제나 열려 있고, 결코 닫
히지 않게 하소서. 부서진 이들과 떡을 떼며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선교주일

예배와 기도

세계성찬주일



본 예배 자료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한 세계성찬주일 자료 꾸러미의 일부입니다. 각 예배의 상황에 맞게 바꾸어 사용하세요. 본 자료들은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봉헌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살렘에서 키태사로, 또 보고타에서 서울에 미치는 식탁을 준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먹이셨고, 정의와 기쁨의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것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 생명이 주님의 환대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오랫동안 잔치가 허락되지 않았던 곳에 식탁을 차리는 일에, 또 고향에 당길 기다리는 마음속에 소망을 심는 일에 사용하옵소서.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떡과 잔뿐만 아니라, 기억과 자비, 그리고 그리스도의 거침없는 환대로 채워진 자로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무관심을 뽑아내고, 자비를 심으며, 누군가가 보이고, 들리고, 치유받는 자리를 마련하게 하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바빌론이든 예루살렘이든, 도심이든 시골길이든, 주님의 식탁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앞서가셔서 용기를 일으키시고, 곁에 머무르셔서 평화를 주시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은혜의 식탁을 계속 차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정의, 소속됨 안에서 나아가십시오. 아멘.

연합감리교인들에게 헌금은 단순한 지출을 넘어서는 용감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예물은 국경, 언어, 문화를 초월하는 사역을 지원하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우리는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드리지 않고, 미래에 가능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드립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식탁을 확장하여 모든 이들이 거기서 자신의 자리와 목적을 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이튼 알레리지 목사, 해리스연합감리교회.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빌.

영향력을 위한 연합: 우리의 관대함은 그리스도의 식탁을 모두에게 확장합니다.